

통합 대상 기관장 '교통정리' 주목... 반발 우려도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

통합 8곳 중 7곳 기관장 존재 임기 남아도 시장과 임기 일치 통합 기관 반발 등 후유증 우려 썬 "고용보장 등 사후관리 강화"

광주시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8개 기관을 통합한 가운데 통합 대상 기관 내 기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또한 통합 대상이 된 기관 조직 내부의 반발도 우려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을 테크노파크로,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을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합친다.

이번 혁신안이 공공기관의 비효율·방만 경영·도덕적 해이 등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 대상 기관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두개의 기관이 합쳐지며 두 기관장 중 한명이 사임하는 등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에 없는 구조다.

유사 업무 기관을 통합해 공공기관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 이후 수장이 두명이 되는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원장이 사임한 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되는 상생일자리재단을 제외하고는 현재 통합 대상 기관에 각 두명의 기관장이 존재한다.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도 일치시킨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기관을 제외한 15곳 모두 임기를 2년으로 맞출 계획이다.

예컨대 2년 뒤 연임이 가능하다면 연임을 하고 시장 임기와 함께 끝낸다. 2년 뒤 후임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시장의 임기와 함께 종료되는 방식이다.

지속적으로 분리 이슈가 있던 광주전남 연구원은 두 지역의 공동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 대상으로 제외됐다.

대대적인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반발 등의 후유증도 우려된다.

대구의 경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의 초점을 여전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안

기존 기관	통합 기관
광주관광재단 +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 과학기술진흥원	→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 광주복지연구원	→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재단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

히 '돈줄'을 옥죄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저 한데 묶을 생각만으로 구조개혁을 시도했다"며 "구조개혁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통합대상 기관 내 조직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고용은 철저히 보장하고 통합 후에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혁신안 발표 이후 4월 말 기관 통합·기능 조정, 6~7월 기관별 경영 혁신안 발표를 거쳐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민주당 혁신'...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내일 창립

내년 총선 당 경선에 후보 2명

더불어민주당 개혁 운동을 하는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연대)가 2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조직 체계 정비, 당원 중심 민주당 혁신, 정치 교체 통한 정치 혁신 등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호남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민주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하고 '줄 세우기' 공천으로 실망을

줬다며 같은해 8월 발기인대회를 열고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평당원인 최희용 후보를 내세워 관심을 끌었다.

연대 총회에는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상임대표에는 시민단체 '광주주'의 전 상임이사인 김현영씨가 내정됐다. 공동대표는 백형진 전 광주전남총학생회장, 정성훈 전 광주시교육감 후보, 김정순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남연합 조직위원장, 이정락 노동운동가, 조현환 광주개인택시조합 상무 등이다.

운영위원은 시·구의원, 사회적 기업 대

표, 사회복지 등 지역 활동가 등이 참여한

다. 연대는 내년 총선에서도 동남을, 북구를 민주당 경선에 후보 2명을 낼 계획이다. 연대가 호남에서 민주당 개혁 목표인 정치단체로 처음 결성된 만큼 정당 활동과 선거 공천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신희봉 연대 사무총장은 "민주당 내 개혁운동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사회 개혁의 과제를 푼없이 추진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며 "개혁적 과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전남도, 탄소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국비 3억 확보

국·도비 5억 들여 전환 추진

전남도가 열악한 공정 시스템 탓에 탄소배출량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공정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탄소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업종 기업의 공정전환을 지원해 2050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확보한 국비 3억원에 도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투입해 도내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 공정실태 파악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공정 전환 전략 마련',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근로자 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항지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s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